



“모델하우스, 창작 하우스라 불러주오”

영무건설 ‘뮤즈 예다음 레지던시’ 운영

모델하우스 재활용 작가 창작 공간 제공

미테우그로 공동 기획…4월 하우스페어

‘모델하우스에 작가들이 산다고?’

내 집 같은 편안함, 안락한 분위기, 폐적인 환경. 작가들의 작업 공간은 이 같은 느낌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미술 재료들, 벽면 곳곳에 묻은 물감이 먼지 떠오른다. 하지만 어떤 작가들이 폐적인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싶지 않겠는가.

한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예술 단체와 손잡고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모델하우스)을 활용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공장, 폐기, 분교, 한옥 등을 활용한 레지던시 공간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을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주)영무건설(회장 박재홍)은 오는 3월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문을 여는 영무에다움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을 지역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뮤즈 예다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아파트 분양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작가들에게는 매달 창작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대인시장 내 있는 대안공간 미테-우그로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미테-우그로는 3월 중에 공고를 통해 참여 작가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영무에다움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은 모두 991m²(300여

평) 규모로 내부에 실제 아파트 구조를 옮겨 놓은 105m²(32평), 92.5m²(28평), 82.6m²(25평) 등 3개의 유닛(아파트 구조)을 갖추고 있다.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을 활용한 레지던시 사업은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대부분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은 분양사업 기간이 끝나면 흉물로 방치돼 왔다. 특히 내부에 실제 아파트를 옮겨 놓은 작업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영무건설과 미테-우그로는 레지던시 사업에 앞서 4월 중에 같은 장소에서 지역 작가들을 위한 하우스페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창작 행사로, 하우스 페어를 통해 시민과 작가, 작가와 기업인들을 이어주겠다는 의도다. 하우스페어에는 관화작가 박구환씨를 비롯해 성혜림, 배수민씨 등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 작가 20~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견본주택 전시장 오픈 축하 화환 대신에 기부금을 받아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한 뒤 추첨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선물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박현태 영무건설 대표이사는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통한 간접경험이 중요하는데 그 시도를 뒷받침하면서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공의 차원에서의 후원이 뛰어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모델하우스를 자활용하면 다양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작 공간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무건설은 광산구 수완지구 영무에다움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입주 작가들은 창작 활동과 함께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성혜림 작 ‘잠시 머물다’



김희영 작 ‘카라’

예술의 거리, 공예의 거리

3월5일까지 아동학대예방 기금마련전

강기형, 고경주, 우영희, 최성임, 황인욱 등 공예작가 46명이 대거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기금 마련 현대공예’전이 27일부터 3월5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는 무등갤러리, 아트디蹲갤러리, 원갤러리 3곳에서 개최된다.

광주MBC가 주최하고, 솜씨, 한국공예문화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도자, 목공, 금속, 섬유, 가죽, 한지, 천연 염색, 생활공예품 등 각자의 손을 거쳐 완성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또 이색적인 아프리카 공예품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공예품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지역 공예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공예예술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고, 실용적인 공예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판매수익금 일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아동학대예방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전시 개막은 27일 오전 11시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062-360-265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끼 넘치는 청춘을 찾습니다

‘극단 청춘’ 신입단원 모집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이 2014년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지난 1989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춘은 ‘만월’, ‘페르조나’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3월14일이다.

입단 신청서는 다음 카페(cafe.daum.net/cctheater)에서 내려받아를 이메일(cctheater@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 및 오디션은

광주시 동구 예술극장 통에서 3월15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본요금	월간 요금	월간 할인
11,000원	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	100% 할인
11,000원	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	55% 할인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5,000원	5,000원	5,000원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다양한 최신 피처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CJ헬로비전 hello 모바일

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